[별지 제1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탐 방 프 로 그 램 인 증 신 청 서

프로그램명	재미있는 법주사 역사퀴즈		
추진목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법주사를 오가며, 흥미로운 역사이야기도 듣고 법주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보는 온가족 참여프로그램		
운영장소	□공원지역 □ 공원외부 ■혼합형		
유 형	□해설자안내 □스스로 안내 □체험형 ■복합(해설자 안내 + 체험)		
범주	□자연해설 ■역사문화 □해안생태 □갯벌사구 □경관해설 □거점해설 ■체험형 □슬라이드 □탐방안내소 내부 □기타 ( )		
운영 대상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일반성인 □노인층 □외국인 □사회적 약자 (장애자 등) ■가족단위 □구분 없음 □기타 ( )		
운영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 없음		
모집인원	10명~20명 이하	진행시간(분)	120분
운영자	관리자 : 황선식		
	해설가 : 자연환경안내원		
활동장소 및 특성	법주사 지구		
	속리산은 충북 보은·괴산군, 경북 상주시 걸쳐있는 산으로 우리나라 중심부에 해당하는 소백산맥 줄기에 위치하고 있다. 울창한 산세와 기암괴석들이 능선을 이루어 소금강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천년고찰 법주사와 쌍사자석등·팔상전 등 유서 깊은 문화재들이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다.		
준비물	해설테마와 관련된 각종 교보재(매회 달라짐)		
제출자료	1. 인증신청서(별지서식-1) 2. 프로그램 운영개요(별지서식-2) 3. 해설 시나리오(별지서식-3) 4. 참고자료(별지서식-4)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2010년 월 일	신청인	국립공원사무소 : (서명)
			프로그램 개발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프 로 그 램 운 영 개 요

프로그램명	재미있는 법주사 역사퀴즈		
활동목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법주사를 오가며, 흥미로운 역사이야기도 듣고 법주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보는 온가족 참여프로그램		
해설주제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서 직접 참여하는 생생한 역사체험		
해설재료	주요 문화재, 자연자원	소요시간(분)	12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운영자원 (준비물)	소요시간(분)
동기유발	호기심유발	질문과 체험노트를 제시하여 프로그램 주제 설명	체험노트, 교재	5분
주제별 해설	국립공원과 문화재의 이해	국립공원 소개 및 문화재 안내		5분
	속리산과 속리산국립공원 소개	속리산 유래		10분
주제심화	법주사 설화와 문화재	주요 문화재와 역사이야기	교보재	15분
	프로그램 소개	진행방식 안내	교보재	10분
	프로그램 진행	미션을 받은 모둠부터 시작	교보재	40분
	프로그램 종료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미션 종료		10분
정리	내용정리	문답시간 (질의응답)	기념품증정 (손수건/볼펜)	20분
마무리	마무리	정리 및 인사		5분

신청인 : 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첫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속리산국립공원 ooo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대답유도) 네 멀리서 오셨네요. 많이 힘드셨죠?? 예. 힘드신 만큼 보람된 하루되시기 바라며, 오늘 속리산에서 저와 함께 소중한 추억들 많이 만들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호기심 유발	여러분 속리산에 오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속리산에는 무엇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이제부터 속리산의 자연과 어우러져있는 주변 모습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망개나무처럼 희귀한 식물들과 하늘다람쥐 같은 귀여운 동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속리산에 오셨으니까 재미있는 역사이야기도 들어야 겠죠? 곳곳에 숨겨진 옛 선현들의 정신과 숨결을 찾아 지금 떠나볼까요?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선생님이 국립공원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재는 어떻게 구분되고 왜 중요한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과 문화재의 이해	국립공원은 어떤 곳일까요? (대답유도) 네! 국립공원이란 국가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연, 생태계, 문화경관이 수려한 곳을 말합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곳이며, 유구한 문화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들을 오래도록 보전하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물려주어할 소중한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문화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며,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귀중한 자산입니다. 문화재는 각 나라 또는 겨레들이 독특한 역사의 풍토안에서 이루어낸 전통의 산물을 말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문화재라함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구요.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법주사 유래와 문화재	속리산국립공원 소개	속리산은 1970년 3월 24일 여섯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 속리산을 세 번 오르면 극락으로 간다 ’ 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있는 문장대를 비롯한 8대와 최고봉인 천왕봉 등 8개의 봉우리 8개의 석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고찰 법주사를 비롯하여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자연자원을 간직한 속리산은 중부지방 자연생태계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속리산이란 이름의 유래를 아세요? 신라시대 속리산은 구봉산이라고 불렸는데. 당시 진표율사가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사에서 불상을 싣고서 수도 할 곳을 찾아 이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황소가 진표율사와 불상을 보고는 엎드려 절을 하며 우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광경에 사람들은 ‘ 짐승도 진표율사를 알아보고 귀의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이를 몰라서야 되겠는가! ’ 하고는 모두 삭발하고 진표스님을 따라 입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삭발하고 구봉산으로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구봉산을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들어온 곳이라 하여 세속 속(俗)자와 떠날 리(離)자를 써서 속리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속세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 재미있고 유익한 법주사 역사퀴즈 ’ 문화해설 프로그램을 속리산 법주사와 그 주변에 있는 문화재들을 소재로 약 1시간 반 정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법주사 창건과 유래	본격적인 퀴즈에 앞서 법주사가 어떤 사찰인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53년)에 의신조사가 삼국통일의 염원을 담아 이곳에 창건했습니다. 그 뒤 혜공왕 12년(776년)에 진표가 새롭게 고쳐 지었으며 그 뒤로 진표의 제자들에 의하여 미륵신앙의 중심도량이 되었다가, 1592년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탄 것을 인조 2년(1624)에 벽암이 다시 지었으며 그 뒤 여러차례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주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의신조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부처님의 뜻을 펼 곳을 찾아 흰 나귀등에 경전을 싣고 다니다 이곳 법주사 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주위를 맴돌자 이를 기이하게 여긴 의신조사가 주변을 살펴보고, 크고 작은 연봉들이 주변을 호위하고 있는 좋은 형상이라 이곳에 절을 짓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하여 법이 머무는 곳 이란 법주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법주사 추래암 벽면에 보면 창건설화가 담긴 벽화가 남아있습니다.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법주사 유래와 문화재

법주사 주요 문화재

호서제일가람(湖西第一伽藍) - 일주문

여기 보이는 문이 바로 절의 첫 관문을 알리는 일주문입니다. 커다란 기둥 두개가 일렬로 서 있어 일주문이라 불립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 같은 곳에서 생활하지만 예전 가옥의 구조를 보면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대문과 마당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일주문은 한 집의 대문 역할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을 한 번 보실까요. 현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을까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예, 호서제일가람이란 글자입니다. 그 뜻은 호수 서쪽에 있는 제일가는 절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호수는 제천의 의림지를 뜻합니다.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3대 저수지였죠.

일주문은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시대적용 기타 네 기둥[四柱]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일반적인 가옥 형태와는 달리 일직선상의 두 기둥 위에 지붕을 얹는 독특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사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독특한 양식으로 세운 것은 일심(一心)을 상징하는 것이다. 신성한 가람에 들어서기 전에 세속의 번뇌를 불법의 청량수로 말끔히 씻고 일심으로 진리의 세